



지역별 지지율 혼전... 이재명 3곳·윤석열 4곳 1위

한라일보·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대선 여론조사

한라일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실시한 대선 공동 여론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어느 선거 때처럼 지역과 지지 정당, 정치 성향에 따라 민심이 크게 엇갈리는 경향이 이번 조사에서도 여김없이 확인됐다.

▶지역별 지지도 옆치락 뒤치락=지역별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번갈아 1·2위를 차지하며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 지역을 7개로 나눠 지지도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3개 지역에서, 윤 후보는 나머지 4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에선 윤 후보가 40.1%의 지지율로, 39.0%를 기록한 이 후보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인천·경기에선 이 후보가 50.4%, 윤 후보가 31.5%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대전·충청·세종과 광주·전남·전북에서도 이 후보의 지지도가 각각 43.8%와 66.6%로 나타나 31.9%와 18.4%를 기록한 윤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정반대 양상이 펼쳐졌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 윤 후보는 각각 51.3%와 39.7%, 43.8%의 지지율을 보여 32.7%와 34.3%, 29.9%의 지지를 얻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연령별 지지도 조사에선 이 후보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 후보는 18~29세 연령대에서 40.3%, 30대에서 42.8%, 40대에서 56.6%, 50대에서 49.2%로 1위에 올랐고, 60대 이상에선 35.7%의 지지도로 해당 연령대에서 51.8%의 지지를 얻은 윤 후보에게 밀렸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윤 후보의 연령대별 지지도는 18~29세 18.2%, 30대 30.4%, 40대 26.9%, 50대 38.5%였다.

정치 성향에 따른 지지도 조사에선 진보·중도성향에서 이 후보가 각각 77.6%와 46.2%로 가장 높았고, 보수성향에선 윤 후보가 69.6%의 지지율로 가장 높았다. '정치 성향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계층에선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27.4%와 26.6%로 나타나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성별 지지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이 후보가 각각 45.9%와 42.2%를 기록해, 34.7%와 36.5%를 보인 윤 후보보다 높았다.

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선 이 후보가 우세했다. 이 후보는 서울(54.3%)과 인천·경기(57.6%), 대전·충청·세종(50.9%), 광주·전남·전북(77.1%), 부산·울산·경남(46.4%) 등 5개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 1위로 평가됐고, 윤 후보는 대구·경북(56.5%)과 강원·제주(48.3%) 등 나머지 2개 지역에서 1위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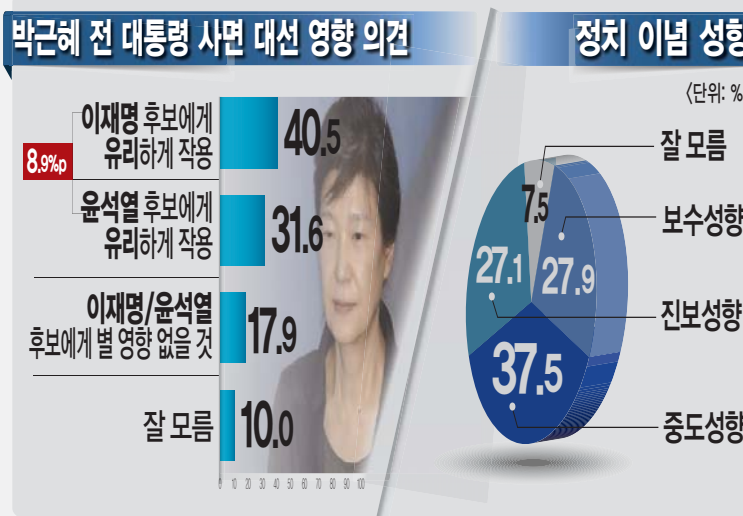
정치 성향별 당선 가능성 평가는 지지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후보가 진보·중도성향에서 각각 81.8%와 57.0%로 가장 높았고 윤 후보는 보수 성향에서 67.6%로 가장 높은 평가를 얻었다.

연령별 당선 가능성도 후보 지지도처럼 이 후보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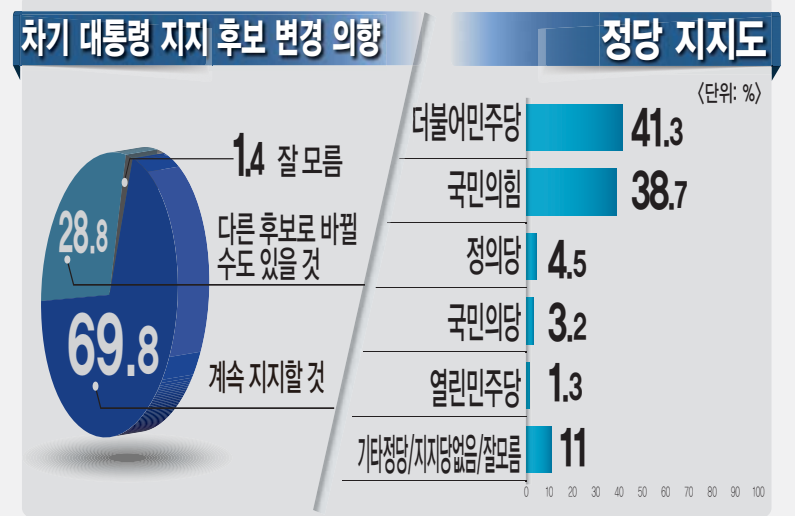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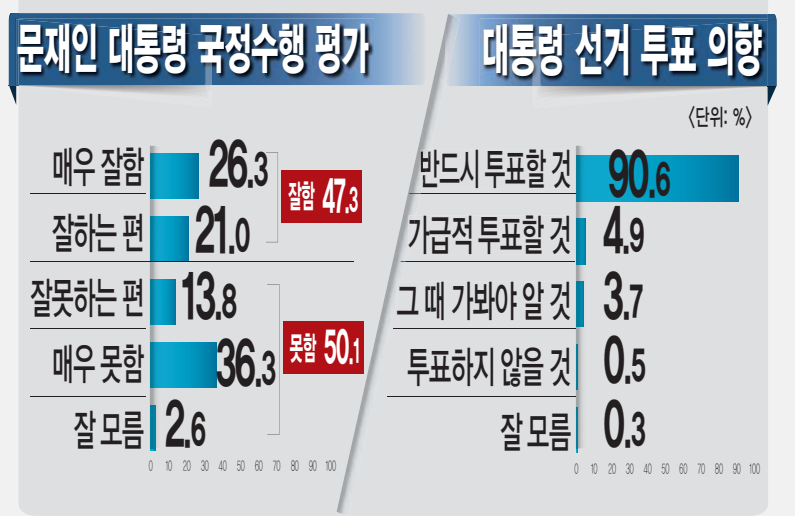
▶지지 세력 이탈 여부 변수=이번 대선도 남은 기간 자신의 지지 세력을 잘 지킬 수 있느냐와 또 이탈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을 어느 후보가 흡수하느냐에 따라 각 진영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28.8%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지율 10% 미만 후보 지지층에서 이런 경향이 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 계층 중 70.9%가 상황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 계층에서는 50.6%가 같은 의사를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 계층에서 각각 18.8%와 17.6%의 비율로 상황에 따른 지지 의사 철회 가능성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대선 후보 지지도를 따라가는 양상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경기(47.5%), 대전·충청·세종(40.6%), 광주·전남·전북(62.7%)에서 1위를, 국민의힘은 서울(44.6%), 대구·경북(51.1%), 부산·울산·경남(49.0%), 강원·제주(52.0%)에



그래픽=이승희



李, 연령별 지지도 60대 제외 전 연령층서 높은 지지
尹, 보수성향에서 지지율·당선 가능성 높게 평가돼
남은 기간 각 진영 지지세력 이탈·흡수 여부가 변수

서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성별에 따른 정당 지지도도 후보 지지도처럼 민주당이 남성(41.5%)과 여성(41.1%)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다만 2위인 국민의힘이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39.9%와 37.5%의 지지율을 보여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었다.

연령별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18~29세(37.5%)와 40대(58.2%), 50대(45.0%)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30대(38.0%)와 60대 이상(50.8%)에서 가장 높았다.

▶임기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임기말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도 조사도 지역과 연령대 등에 따라 긍·부정 평가가 갈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부정 52.8%·긍정 45.8%)과 대구·경북(부정 60.6%·긍정 33.7%), 부산·울산·경남(부정 61.0%·긍정 37.4%), 강원·제주(부정 56.0%·긍정 35.9%) 등 4개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앞섰다. 나머지 인천·경기(긍정 50.3%·부정 47.3%)와 대전·충청·세종(긍정 51.0%·부정 47.0%), 광주·전남·전북(긍정 70.4%·부정 27.9%) 등 3개 지역에선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부정 50.9%·긍정 45.3%)와 30대(부정 52.0%·긍정 46.5%), 60대 이상(부정 58.9%·긍정 37.6%)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고, 40대(긍정 61.7%·부정 36.4%)와 50대(긍정 50.4%·부정 48.1%)에선 긍정 평가가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에서 83.9%의

비율로 긍정 평가가, 반대로 중도·보수 성향에서는 51.3%와 85.0% 비율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이밖에 이번 여론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5%가 '3월 대선 때 반드시 또는 가급적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선 중도 성향 37.5%, 보수 성향 27.9%, 진보 성향 2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라일보와 대신협이 (주)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조사 방식(ARS·무선 100%)으로 진행했다.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謹賀新年

호랑이 기운 받으시고
힘찬 새해 되세요

힘찬 2022
임인년(壬寅年)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 이상기 대의원총회장 홍상철

대의원총회부회장 김성언 수석부회장 현경철 외무부회장 강준혁 내무부회장 문창민

내무이사(복지)	황학수	국제이사	최미영	무임소이사	안효수
보협이사	정성인	의무이사	정원근	무임소이사	이상훈
총무이사	이경원	법제이사	김성진	정보통신이사	
보협이사		학술이사	최우석		
재무이사	이창승	약무이사	정덕희	감사	김성중
홍보이사		홍보이사		감사	김성은

제주시 국기로 36 성은빌딩(4층) TEL. 751-3545, FAX. 751-2579

謹賀新年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는 제주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22년 새해에도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회장 강원호

부회장	허원철	총회의장	좌석훈	여약사위원장	고경희
원철경	김영환	총회부회장	강은실	보험위원장	김민성
김민성	김민성		오지홍	학술위원장	장영수
김민성	김민성	감사	박민선	한약위원장	송근형
김민성	김민성		허준	근무약사위원장	홍석중
김민성	김민성	총무위원장	강대원	병원약사위원장	김윤희
김민성	김민성	약국위원장	양승화	홍보위원장	박정희

제주시 아봉로 18(아라2동), TEL. 755-9525, FAX. 757-3428